

2026년 보건·의료 창업기업 북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FAQ

1 지원 자격 및 조건

Q1: 서울 소재 기업이란?

- ↳ 본사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 중 어느 하나라도 서울시에 소재하면(증빙서류 필수 제출) 서울 소재로 인정됩니다. 그 외는 불인정 됩니다.

Q2: 몇주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가요?

- ↳ 본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, 6월부터 8월 초까지 약 10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.

1단계 Pre-Bootcamp(사전 프로그램) 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3주간,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현지 프로그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미 시장 가설 설계, 리서치 툴킷 준비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합니다.

2단계 Stanford Main Workshop(현지 프로그램) 은 미국 스탠포드 캠퍼스에서 2주간 진행됩니다. 스탠포드 d.school·의대·경영대학원 전문가 멘토링, 현지 Field Study,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현장 중심의 시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.

3단계 Post-Workshop(사후 프로그램) 은 귀국 후 국내에서 진행되며, 현지에서 확보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GTM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(VC)를 대상으로 한 성과 발표(IR)로 마무리됩니다.

전체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확정 일정은 협약 체결 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Q3: 2주 전부 체류해야하나요?

- ↳ 네, 현지 프로그램 2주 전 일정 참가는 필수 사항입니다. 본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전문가 멘토링, 현지 Field Study, 사용자·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매일의 세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, 일부 일정만 참가할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온전히 얻기 어렵습니다. 이에 따라 미국 현지 2주 체류가 불가한 경우,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
Q4: 예상되는 개인 소요금액은 얼마인가요?

- ↳ 프로그램 참가비(사업화지원금으로 지원)를 제외한 항공료·숙박비·식비·현지 교통비 등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는 참가 기업이 자부담하셔야 합니다. 현재 미국 현지 물가 수준과 환율, 국제 정세 등 변동 요인이 많아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Q5: MVP가 꼭 필요한가?

- ↳ MVP(최소기능제품) 보유 여부는 본 프로그램의 핵심 선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. 본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된 제품·서비스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검증하고, 북미 시장 적합성(PMF)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스탠포드 전문가 멘토링, 현지 의료기관 및 잠재 고객 인터뷰, 실리콘밸리 VC 피칭 등 모든 프로그램 세션이 구체적인 제품·서비스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, 아이디어 단계의 기업이 참가하실 경우 프로그램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. MVP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단계라면, 이번 사업보다는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초기 검증에 먼저 집중하신 후 북미 진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귀사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기술자문 지원 사업 등 개발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, 현재 단계에 적합한 사업을 함께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.

Q6: 의료기기, 디지털 헬스케어 말고 신약개발 회사도 지원 대상인지?

- ↳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·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으로, 신약개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본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d.school·의대·경영대학원 전문가와 연계한 PMF 검증, GTM 전략 수립, 현지 의료기관 Field Study 등 단기간 내 시장 검증이 가능한 제품·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, 임상 단계가 길고 규제 허들이 높은 신약개발 기업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신약개발 분야의 경우, 서울바이오허브 성장지원팀에서 운영하는 랩센트럴 연계 사업이 훨씬 더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. 보스턴 현지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및 글로벌 제약·바이오 생태계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만큼 신약개발 기업의 특성과 단계에 더 부합합니다.

2 지원 범위

Q7: 스탠포드 실험실 및 연구시설 투어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교육이 진행되는지?

↳ 현재는 수요기업 모집 및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, 확정된 참여기업의 분야와 관심 시설에 따라 투어 일정 및 사전 교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수요기업 선정 완료 후 Stanford SCIDR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기업별 맞춤형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며,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 Pre-Bootcamp 단계에서 관련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. 확정된 세부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Q8: 스탠포드와의 협업을 원하는데 가능한지?

↳ 스탠포드 대학교와 개별 기업이 직접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거나 독립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스탠포드 측의 내부 정책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다만 본 프로그램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서울바이오허브가 Stanford SCIDR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참여기업은 이 협력 체계를 통해 스탠포드 dschool·의대·경영대학원 전문가와의 1:1 멘토링, 연구실 투어, 네트워킹 등 스탠포드의 인프라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개별 협약은 어렵더라도, 본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스탠포드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교두보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·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.

Q9: 수료 후 수료증이 나오는지?

↳ 본 프로그램은 별도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본 사업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위 과정이나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이 아닌, 서울바이오허브와 Stanford SCIDR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북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으로, 수료증 발급은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스탠포드 명의의 수료증을 받으시려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CEO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는 수

료증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검증한 북미 GTM 전략 로드맵, 글로벌 Pitch Deck, 스탠포드 전문가 네트워크, 실리콘밸리 VC 피드백 등에 있습니다. 이러한 결과물들이 귀사의 북미 진출에 훨씬 더 실질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